

Bay Area Full Gospel Church

큰빛은혜교회

Be still, and know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못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시편 46:10



웹 바로가기

Senior Pastor

담임목사 이기봉

Asistant Pastor

교육전도사 김태아 임성호 김승연
Sam Kim Grace Kim

지교회 전도사 이중록

 큰빛은혜교회

415 317 4631

www.bafgchurch.org

bafgchurch@gmail.com

125 E Arques Ave, Sunnyvale, CA

제 5호 5권

Vol. 5 No.5

2.1.2026

여는 기도
Representative Prayer

담임 목사
Senior Pastor

말씀
Sermon

구원 받으세요
에베소서 2장 8~9절

담임 목사
Senior Pastor

합심 기도
United Prayer

다같이
Together

성찬
Communion

보혈을 지나

다같이
Together

봉헌 및 찬양
Offering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다같이
Together

광고
Announcements

담임 목사
Senior Pastor

* 찬양
Blessing Song

삼중 축복

다같이
Together

축도
Benediction

담임 목사
Senior Pastor

* 자리에서 일어나서
* Please stand



기도 순서

2/1

예배집중데이

2/8

장승현

2/15

우빛나래

2/22

김찬양

3/1

조주현

1. 성찬 주일/예배 집중 데이

이번 주는 성찬 주일/예배 집중 데이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주일 예배 안내

당분간 예배는 2부 연합예배로 드려집니다.

3. 남성교구 주관 천하제일 볼링대회

일시: 2월 1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장소: Homestead Bowl

(20990 Homestead Rd, Cupertino, CA, 95014)

4. 연간 헌금 내역 신청

세금 보고를 위한 연간 헌금 내역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김보라 전도사

5. 가정 예배지

남성교구주관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인해

이번 주는 가정 예배지가 없습니다.

2월 생일

7일

김태아 전도사

2월 성찬위원

김용현, 김아론, 김대환

남성교구 주관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일시: 2월 2일 (월) ~ 6일 (금) 오전 6시

장소: 교육관 / YouTube Live



아비규환(阿鼻叫喚) 소리 없는 전쟁터에서 길을 묻다

우리는 흔히 포탄이 터지고 비명이 난무하는
참혹한 전쟁터를 가리켜 '아비규환'이라 부른다.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인 '아비지옥'과
울부짖음이 가득한 '규환지옥'을 합친 말이다.
그러나 오늘날, 굳이 화약 냄새 진동하는 전선에 서지 않더라도
우리는 매일 이 지옥의 변주곡을 듣고 있다.

<보이지 않는 총성, 무한 경쟁의 지옥>

현대판 아비규환은 물리적 폭력이 아닌 '속도'와 '비교'라는 이름으로 찾아왔다. 타인보다 한 걸음 뒤처지는 것을 곧 도태로 여기는 사회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보이지 않는 총을 겨눈다. SNS라는 화려한 전시장은 누군가에게는 부러움의 지옥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증명을 위한 고문대가 된다.

그것은 성취의 역설처럼 더 많이 가질수록 더 큰 결핍을 느끼는 기묘한 갈증을 유발시키며, 디지털이 세계를 연결하는 초연결 시대라지만, 정작 마음과 마음이 닿는 선은 끊어진 채 각자의 모니터 앞에서 고독하게 절규한다.

<파편화된 정의와 혐오의 규환>

과거의 전쟁이 국가와 국가의 싸움이었다면, 지금의 전쟁은 모두와 모두의 싸움이다. 정치, 젠더, 세대, 계급이라는 날카로운 파편들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다. 자신의 정의만이 옳다고 외치는 확증편향의 숲에서 대화는 사라지고 혐오의 함성만이 가득하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규환(叫喚)', 즉 울부짖으며 서로를 다투는 지옥의 모습과 닮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새로 흐르는 한 줄기 빛>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빛'이다. 아비규환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희망의 증거들을 발견한다.

공감의 연대 : 이름 모를 타인의 슬픔에 기꺼이 눈물 흘리고, 재난의 현장에 구호의 손길을 뻗는 평범한 이웃들.

멈춤의 미학 : 모두가 달릴 때 잠시 멈춰 서서 길가에 핀 꽃을 보거나, 사랑하는 이의 안부를 묻는 작은 여유.

인간 존엄의 회복 : 기계와 알고리즘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따뜻한 '온기'를 지키려는 몸부림.

결국 이 아비규환을 끝낼 열쇠는 거창한 혁명이 아니라, 내 곁의 사람을 '적'이나 '도구'가 아닌 '사람'으로 바라보는 시선에 있다. 어둠이 짙을수록 아주 작은 촛불 하나도 눈부시게 빛나는 법이다. 우리는 지금 비록 소란스러운 지옥 한복판을 지나고 있을지언정, 서로의 손을 잡는 순간 그곳은 더 이상 아비규환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될 것이다. 당신이 오늘 건넌 다정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이 지옥을 버티게 할 단 하나의 빛일 지도 모른다.

우리의 **국외 사역**

큰은혜교회 

최정선 목사 (한국)

히라가타 순복음교회 

박경복 목사 (일본)

아가페교회 

윤상현 선교사 (필리핀)



컴패션과 함께 양육하는 16명의 아이들

엘살바도르 

BRIANA
GENESIS
JOSUE
LUIS

과테말라 

ESTEFANI
NANCY
ROBERTO
YEFERSON

온두라스 

CAMILA
JENNSY
LIA
ORIANA

니카라과 

EMELY
GAEL
OSCAR
VALENTINA

우리의 **국내 사역**

홀리스 아웃리치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는 이들을 찾아가는 돌봄 사역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장소: 산호세 콜롬버스 파크

지교회 (솔라노 큰빛은혜교회)

솔라노 지역 바카빌에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사랑스러운 교회

주일 예배 시간: 오후 1시

장소: 78 Peabody Rd, Vacaville, CA 95687

캠퍼스 사역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깨어있는 시대정신과

영성을 통한 캠퍼스 복음화 사역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장소: De Anza college

어라이즈 워십 & 악기클래스

베이지역에 찬양의 향기가 울려 퍼지며,
악기레슨을 통해 1인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돕는 사역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교육관



영감 있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지성과 영성이 조화를 이루는 교회



구원의 확신을 통해 마음의 평안과 삶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육체의 성장과 생각의
깊이와 영적 성숙이 점점 확장되는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로부터 시작되어
세계 선교로 마치는 교회



나에게 나타난 열매를 통해 나눠주고 꾸어주며
베풀어주는 교회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훈련되고 재생산되어
파송하는 교회



큰빛은혜교회를
검색해보세요

주 일 1부	오전 9시	본 당
주 일 2부	오전 10시 30분	본 당
주 일 학 교	오전 10시 30분	교 육 관
금 요	오후 7시 30분	본 당
새 벽	오전 6시 (월-금)	기도 처소 / YouTube Live